희망을 찾아서

드림몰에서 꿈을 펼치다.

시각장애인 박준호씨

생후 8개월째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후 남들보다 조금 안 보이는 눈이지만 별 문제 없이 살아왔다는 박준호씨는 3급의 시각장애인입니다. 2005년 장애판정을 받기 전까지 비시각장애인과 같이 일반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에는 직장에도 다녔습니다. 복지카드를 소지하기 전까지는 장애인복지시책이나 점자, 안마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습니다. 컴퓨터 판매나 방문교육, pc방 운영 등을 하면서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덜 보일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컴퓨터 방문교육 강사로 활동하던 중 우연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알게 되었고, 연합회에서 인터넷마케팅 훈련을 한 후 본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업훈련을 받기 전까지 해오던 컴퓨터 관련 제품 유통 사업을 드림몰로 연장하여 컴퓨터 본체를 제외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카테고리를 취급할 생각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Q&A 운영, 비장애인들과 택배수령이 어려운 분들이 지하철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직접 방문하여 제품에 대한 설명도 해주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성공하겠다는 다부진 마케팅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는 오늘도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드림몰 홈페이지 (www.eshop.kbuwel.or.kr / www.kbumall.com)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문을 사용할 때

문을 열었을 때에는 다시 꼭 닫아 두든가, 아니면 활짝 열어 벽에 바짝 붙여 놓아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문을 열어 놓으면 시각장애인이 지나가다 문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25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의전화: 02-9500-103)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국민은행**: 835-01-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4권 9호 통권 98호

2008년 9월 1일 발행

발행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및 편집인 : 권인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전화 : 02-6925-1114 _ 팩스 : 02-6925-1117
Homepage : www.kbuwel.or.kr
E-mail : kbuhongbo@hanmail.net
우)150-8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호 이룸센터 3층 305호

제작 : 쥬비컴 디자인전문회사
전화 : 02-2091-1255 _ 팩스 : 02-2091-1253

표지이야기 : 상단 : 8월 18일 마사리에서 개최된 '2008 시각장애인 실내조정선수권대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조정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 : 시각장애 학생 10명이 4주 동안 미국 씨애틀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사단법인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2차원바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우측상단)

테마기획

안마업은 왜 시각장애인만의 직종이어야 할까요.

고래로부터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안마업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종이며, 달리 취업 직종이 없기에 나라에서도 그리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포츠마사지사 등 비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만의 안마업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신청했고,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은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안마업을 빼앗길 경우 대다수 시각장애인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할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입니다. 스포츠마사지사들에게는 다른 직종을 선택할 여지가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의사들조차도 스포츠마사지사들의 헌법소원을 기각되어야 한다며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한의사들은 "시각장애인은 스포츠마사지사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심대하게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의료법에 예외를 둔 것이며, 안마사 자격은 법령에 의한 3년 이상의 안마사 전문 교육을 통하여 안마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고, 비시각장애인이 마사지 등 물리적 시술을 하고자 한다면 관계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 또는 의료인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있어 침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만의 직업이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판결을 내리기를 기원합니다.